

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약간쌀쌀

요즘 하루의 시작은 자정이 넘어서 새벽1시, 내가 잠들기 전까지 준식이와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. 어느덧 만난 지 두 달 정도가 다 되어간다. 나의 첫 남자친구. 내 일상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사람.

휴학 중이라 하루가 여유롭다. 아침에 한 10시쯤 멍기적 일어나서, 알바를 가는 날이면 최대한 게으름을 피운다.

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게으름을 피우는데 갑자기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.

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너는 휴학한지 벌써 6개월이 되는데 해놓은것도 없고 공부한다더니 연애나 시작하고... 라고 한소리를 들어서일까.

그래서 그 날 오후 준식이에 대한 내 마음은 조금 날이 서있었다.

이 친구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,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고.

그에 비해 나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보였다. 그래서 무심코 대화중에 너 오늘 들떠 보인다. 라고 했던 것 같다. 하지만 이내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평상시 대화로 돌아왔지만 나에 대한 한심함은 사라지질 않았다.

아무것도 모르는 준식이는 나에게 집에 가다 본 토끼풀꽃 사진을 보내며 “이 꽃 너 닮았어. 하얗고 조그만게 예뻐.” 라고 해주었다. 종종 이런 말들로 나를 감동시키곤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이 듣고 싶었다. 나를 예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느껴졌다. (하지만 게으름은 어쩔 수 없어서 또 몇 시간을 뒹굴거렸다.)

내일은 독서실을 알아봐야지 하면서 데이트 비용, 여행겝돈, 은행적금 등등의 것들을 처리할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다. 휴학생은 돈이 참 많이 드는 것 같다.

오후 4시쯤 되어서 아르바이트 갈 준비를 하려는데 카페사장님께서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며 하루 쉬자고 연락이 왔다. 평소 같았으면 더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좋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일을 했으면 했는데..., 수업이 끝난 준식이와 연락을 조금 하다가 먼저 취직을 한 친구에게서 치킨을 쓴다는 연락을 받아서 오후8시쯤 집 앞 치킨집에서 만났다. 오랜만에 만난 친구여서 별 얘기를 다했다. 특히 주변에 남자친구있는 사람이 없어서 연애사에 대해 얘기할 친구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. 마침 준식이도 친구와 함께 한잔한다고 해서 편하게 놀다가 들어왔다. 집에 돌아와서는 시연이와 길게 통화를 하면서 예전에 내가 시연이에게 보내 준 편지도 읽어보고, 다른 친구의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. 8년전 편지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둘 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했다. 그래도 꽤 재밌는 편지들을 보냈던 것 같았다. 나중에 다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. 그리고 오늘 함께 치킨을 먹었던 친구의 조언대로 목요일에 준식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던 약속을 취소했다.

아무래도 사귄 지 얼마 안됐는데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건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, 나도 아직은 야외에서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정신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해서 그 날은 야외에서 놀기로 변경했다.

그 친구도 결국은 남자니까 희망고문 같은거 하면 힘들어 할 것 같기도 하고.

그렇게 하루가 갔다. 내일은 내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....

벌써 여름이 오고 있다.